

가족폭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가족폭력에 관한 연구 I—

고신대학 의학부 정신간호학 교실

강 은 실

Theoretical Review for Violence in Family

Eun Sil Kang

*Department of Psychitric Nursing
Kosin Medical College, Pusan 602-702, Korea*

= Abstract =

Family violence was hidden crime or underreported crime in our society. Battering tends to increase and become more violent over time.

Social violence was deeply related to family violence. Many batterers learned violent behavior growing up in an abusive family.

In our country, family violence tends to become public, social problems. Recently, some papers about abusive family were reported.

Battering may lead to secondary social problem. Therefore, the preventive intervention and strategy about family violence were needed.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contribute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bases related future empirical study.

The contents of this literal review about family vionence were the exents of family violence, special causes, conceptual definition, cycles, types, theories of interpersonal violence applied to the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trategy about family violence.

Key Words : Family Violence

I. 서 론

고도의 산업 사회화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범죄와 폭력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산업화 이후 대가족 제도에서부터 핵가족제도로의 가족제도의 변화는 가족내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아직도 가족내 여성폭력의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치료나 예방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있어왔지만, 폭력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폭력에 대한 문제는 가족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또한 역으로 가족폭력의 발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습론자들은 사회 폭력의 문제를 가족 내 폭력의 학습의 산물로 보고 있다.(Bannura, 1961)

물론 가족이란 특별히 친밀감과 프라이버시가 높은 조직이므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폭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왜냐하면 다른 집단과 나누는 어떤 변수들은 가족 내에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높은 수준의 폭력의 발생은 가족관계에서 잘 발생된다.

따라서 가족 내 폭력의 원인을 잘 조사하면 나아가서 다른 폭력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더우기 갈등론자들은 사회적 관계에서는 갈등이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폭력은 가정이나 국가간에서도 불가피한 것이며 필요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Dahrendorf, 1959)

다시 말하면 갈등론자들은 폭력적인 갈등이란 때로는 바람직한 것이며 사회생활에서 다

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갈등을 조절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가족폭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풍부한 까닭은 오랫동안 가족적이 아닌 상황에서 공격심이나 폭력에 관한 연구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적인 다양성은 때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들을 고찰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보며, 이것은 또한 앞으로 가족폭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위한 기본이 되는 문헌적 고찰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폭력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자는 기술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II. 본 론

A. 가족폭력의 범위(Extent)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폭력이 가족관계에서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양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체벌(physical punishment)

가족폭력의 가장 흔한 형태로서 비교적 연구하기 쉽기 때문에 결과들이 많은데, 신체적 학대는 다른 폭력과는 달리 정상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고 또한 폭력의 동기도 이타주의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신체적인 힘을 사용해서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이다. 따라서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폭력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공격심을 조정하기 위해 체벌을 사용할 때 자녀들의 공격심이 감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폭력이 폭력을 낳게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주 체벌을 잘못 사용하다가 자녀학대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 자녀학대(Child Abuse)

자녀학대에 대한 발생 빈도는 낮게는 연간 6000명에서 10000명으로 보고 있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연간 20만 50만정도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살해(murder)

범죄에 포함되므로 비교적 많은 자료가 있다.

미국 내 살해의 20~40%가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22~63%, 가장 높은 비율은 67%로 네덜란드로 보고되고 있다.

4) 폭행(Assault)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심한 폭행은 11%(St.Louis), 52%(Detroit)로 보고된 바 있으며, Levinger(1974)와 O'Brien(1971)은 이혼 청구 소송자 중 17%가 폭력행위를 호소했음을 보고했다. Levinger는 중류층 부부에게는 23%, 노동자 계층 부부에서는 40%가 신체적 학대를 호소했다고 했다. 물론 이혼하지 않은 부부들 사이의 신체적 폭력은 그보다는 적겠지만 차이는 그리 크게 나지 않을 것이다.

"National commission on the cause and prevention of violence"의 자료에서는 남편은 4명중 1명이, 여자는 6명중 1명이 어떤 조건 하에서 부인의 뺨을 때린 것을 시인했다. 물론 시인한 사람은 다시 때리지 않을 것이고 시인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때리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미국가정의 1/4에 부부폭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80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족 내 폭력 빈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56%부부가 때로 상호 신체적 폭력을 사용했으며, 20%는 남편이나 부인의 폭력이 상습적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했음을 보고했다(적어도 1년간 6회이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고등학교 상급생 기간 중 논쟁하면서, 두드러맞거나, 꼬집은 적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62%가 형제, 자매에게 신체적 폭력을 사용했다고 보

고하고 있다. 부모들의 16%는 상호폭력사용(년간)을 사용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비율은 더 높을 것이다.

B. 가족 내 폭력이 쉽게 일어나는 이유

가족폭력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형태의 폭력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가족이란 사회 제도로서, 사회집단의 하나로서, 소그룹의 구별된 특징을 소유하고 있다. 가족폭력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특수한 양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폭력의 특수한 경우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1) 위험이 높은 시기(time at risk)

시간이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의 발달주기중 어떤 시기는 특별히 폭력의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다.

2)활동의 범위와 관심이 다름

일차집단으로서 가족은 다양한 활동범위를 갖고 있다. 이것은 상대방의 기대를 추측하기 곤란하거나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된다.

3) 개입의 정도가 크다 (Intensity of Involvement)

논쟁이나 불만족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지만, 가족 외부에서 보다 더 상해의 정도가 크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논쟁이나 불만족보다는 자녀들이나 배우자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일 때,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4) 활동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

가족 내 많은 활동은 Zero-Sum 측면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아진다. 개인습관, 생활습관에 의해 가족 내에서 다른 사람과 충돌되기 쉽다.

5) 영향을 줄 권리가 있다고 생각

가족 내 구성원은 타인의 행동에 간섭이나 영향을 미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타인과 원치 않는 활동의 충돌이 나타난다.

6) 연령 및 성적인 차이

가족은 다른 성(sex)과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부사이에도 세대차나 성적인 차이가 그들의 문화나 인생관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족 내에서도 문화적 갈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성별간의 투쟁이나 세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7) 역할의 기원

년령과 성별의 문제로 인해서 가족의 지위와 역할의 결정은 관심이나 능력보다는 생리적 특징이 기초로 결정된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가 평등주의 원칙을 따를 때는 높은 갈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불일치가 없어도 갈등은 높은데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기술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남편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8) 가족 내 프라이버시

가족내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족내 규범, 혈족관계, 가사구조 등, 가족이 갖고 있는 프라이버시는 사회적인 중재나 지원으로부터 가족을 격리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도시산업의 부부, 가족 체계 내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다.

9) 비자발적 구성관계

출생으로 인한 관계는 비자발적으로 형성된다. 미성년 자녀들은 이러한 가족관계에서 고통을 수가 없다. Sprey(1969)는 부부관계에도 비자발적인 측면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결혼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있다. 즉 “죽을 때까지 나누이지 못한다”는 말로 잘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외에도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집단 내에서 사회적, 신체적, 법적으로 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서적, 물질적, 법적 맺가들이나 제한들이 있다.

10) 높은 스트레스 수준

핵가족 관계는 많은 경우에 있어 불안정하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불안정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그외에도 핵가족은 가족 생애주

기에 따른 과정의 결과로서 구조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계속 겪는다. 즉 자녀의 출산, 자녀의 성장, 노쇠, 은퇴 등이다. 이러한 특성은 가족관계에 막대한 정서적 투자와 복합되어 더 심각한 Stress를 받기 쉽다.

11) 규범적 승인

비가족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물리적 힘의 사용은 심각한 도덕적, 법적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가족 구성원 사이의 폭력은 합법화될 수 있는 문화적 규범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들은 물리적 폭력을 사용할 권리가 확실히 있다는 사실은 말로써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쉽게 일어나고 있으며 “결혼 증명서”인, 혼인신고서는 “때릴 수 있는 증명서”로 될 수 있는 규범들을 통해서 깊게 뿌리박힌 꽤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

12) 폭력의 사회화와 일반화

폭력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된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출발은 체벌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체벌이 의도적 교육을 위한 것이든 아니든 체벌의 사용은 학습된다는 사실이다.

- 첫번째 학습결과는 사랑과 관계된 체벌 역시 비의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녀들은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때리는 사람이며, 또 때릴 권리가 있음을 배운다.

- 두번째 비의도적 결과로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신체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 마지막 결과로서는 이러한 간접적 교육이 후에 자녀들이 자랐을 때 자신의 자녀들을 교정하기 위한 Model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인격, 세계관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다른 사회적 관계에도 일반화되고 특히 부모나 자녀들 부부관계 등 가까운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게 되기 쉽다. 즉 체벌을 통한 경험은 역할 모형을 제공한다.

C. 가족폭력에 대한 개념적 정의

1) 폭력(Violence)—고의적이거나 또는 고의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타인을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이란 뺨을 때리는 것에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경한 것에서부터 정도가 심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2) 공격심(Aggression)—폭력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악의가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즉 고의성을 가지고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상처란 심리적, 물질적 박탈이나 신체적 통증이나 손상 등이 될 수 있으며 상처가 통증이나 손상을 줄 때 신체적인 공격심이라 부르며 폭력과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다.

3) 힘(Force)—William Goode(1971)는 폭력이란 용어의 사용을 “신체적인 힘을 합법적인 것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한하고 있다.

예를들어, 자녀 구타나 데모자들과 같이 행동이 사회적으로 합법적이라면 폭력이란 말보다는 힘(force)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D. 가족폭력의 주기

가족폭력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 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단계—긴장, 분노, 비난, 논쟁이 증가되는 시기

2단계—구타가 발생하는 시기로서, 그 유형으로는 치고, 뺨을 때리고, 차고, 목을 조르고, 물건이나 무기 등을 사용하거나, 성적폭행, 언어적 위협과 학대 등이 있다.

3단계—진정된 시기(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시기는 점점 감소된다) 남자들은 폭력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이 술에 취해서 그랬으며 대단히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E. 가족폭력의 유형

분류방법

- 1) 시작하고 있는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
- 2) 폭력의 희생에 대한 예상범위
- 3) 폭력의 심한 정도
- 4) 폭력으로 인한 결과가 의도적이냐 또는 피해자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따라
- 5) 공격자가 자신의 행동을 사회적인 규범이나 의무감에서 요구된 행동으로 지각하고 있는지 또는 자신의 성격적인 동기에 의한 행동으로 지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1. Legitimacy(합법성)

합법적인 폭력이라 부름

사회규범이 허락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신체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자녀매질, 전쟁시 적군에게 총을 쏘는 것, 죄수들에게 대형을 가하는 것으로.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불순종하는 부인에게 매질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2. Instrumentality(도구성)

도구적 차원에서 “표현적인 폭력과 도구적 폭력으로 구분

1) 표현적 폭력(Expressive violence)—분노나 화가 나서 어떤 사람을 때리는 것처럼 고통이나 상해를 일으키는 신체적 힘의 사용을 의미한다.

2) 도구적 폭력(Instrumental violence)—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벌, 고통, 상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구분이 곤란할 할 때가 많다. 도구적으로 사용한 폭력이 나중에는 표현적(Expressive)이 되는 경우가 많다.

3. 4가지 형태의 폭력

앞서 두가지 차원을 다시 이분화시킨 것으로 네가지 형태의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도 구 적	합 법 적 표 현 적	비합법적 표 현 적
	합 법 적 도 구 적	비합법적 도 구 적

1) 합법적-표현적 폭력

개인의 감정이나 필요에 의해 사회규범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감정해소(catharsis)가 그 예이다.

소위 정상적인 공격심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심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 비합법적-표현적 폭력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의 폭력으로서 가족 내 가장 크고 극단적인 폭력 형태를 취한다. 즉 아동학대나 살인 등이 그 예이다. 형제들끼리 분노상태에서 폭력으로 지나친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것이나, 지나친 체벌 등도 포함된다.

3) 합법적-도구적 폭력

비합법적이고 표현적인 폭력이 가족 내 가장 널리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실은 사회규범이 허락하는 도구적 폭력이 가장 많다.

이것은 부모에 의한 체벌에 의한 것만 아니고 형제 관계에서도 나이가 많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권위를 위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역할 모형을 곧 따르기 때문이다.

부인에 대한 체벌의 법적 권한이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집단에서는 비공식적인 규범으로서 배우자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다.

4) 비합법적-도구적 폭력

합법적인 것과 비합법적이고 도구적인 폭력과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 이것은 연속체로서 편이에 따라 구분하기 때문에 비록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부모가 자신의 감정 해소를 위해 뺨을 때릴 때에는 그것은 자녀 학대로 분류할 수 있다. 비록 규범이 인정하는 체

벌일지라도 쉽게 비합법적인 것으로 되기 쉽다.

F. 가족폭력에 대한 이론적 유형들

각 이론들에서 말하는 공격심과 폭력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지만 적어도 몇가지 주요개념에서 표준화를 시킨다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내 이론

개인이 행위자로서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유전적, 본능적, 생물학적 요소에 기초한 것은 제외된다. 왜냐하면 가족 폭력을 설명하는데 있어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병리학적인 이론이나 알콜 및 약물이론은 전자가 자녀구타를 후자가 부인-남편 구타를 설명하는데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1) 정신병리학

폭력을 개인 내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것의 결과로 본다.

개인의 어떤 내적 이탈, 비정상, 결함 때문에 폭력적이 된다. 이런 특성들로서는 부적절한 자아 조절력, 가학성, 정신병리학적인 성격 유형과 미분류된 정신질환 등이다.

정신병리학적인 모형은 집단 폭력이 공격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이 이론의 결점은 이 이론을 지지할만한 과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점과 비정상적인 인격 특성이 정신질환의 지표로서 주기적인 폭력 사용 행위 뿐만 아니라 폭력과 관련이 있음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다.

2) 알코올과 약물

알콜과 약물에 관한 설명은 인간 속에 존재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방출시키는 물질로서 이물질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알콜과 약물은 초자아의 통제를 파괴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폭력에 대한 유전적이고 후천적인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작용한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이론은 가족 폭력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

장 좋아하는 민간이론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희생자, 공격자, 사회 통제 요인들, 대중 매체) 폭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자주 술에 취해 있었거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Smell외(1964)는 아내 구타를 분석하면서, 아내 구타는 Alcohol중독자들에게 아주 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폭력의 원인으로서 Alcohol과 약물이론에 대해서는 엄격한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다. MacAndrew와 Edgerton(1969)는 알콜에 대한 전통적 지식에 논쟁하는 인상적인 특별 연구서를 내놓았다. 그 연구들 중 하나는 Alcohol과 폭력 사이관계는 아마 Alcohol이 억제제를 방해하는 성질로 인한 기능이 아니고 차라리 술에 취하는 것은 자신의 원치 않는 행동에 대해 편리하게 용서를 받기 쉬운 핑계로서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술 취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에 대해 폭력이라는 이타를 중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때린데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 술에 취하게 된다.

2. 사회-심리학적 이론들

사회 심리학적 이론들은 사회환경과 개인과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다. 즉 다른 사람들, 집단, 조직들과 개인과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이론은 폭력의 원인을 이들 관계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대인관계에 좌절이나 학습과정들, 타인의 태도에 반영되는 자신의 태도 등이다.

1) 좌절-공격이론

이 이론은 Dollard(1979)에 의해서 특수화되고, Miller(1941)에 의해 수정되었다. 좌절 공격이론은 공격적인 행동은 어떤 목적적인 행동이 좌절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개체는 중요한 목표를 차단시킨 대상에 대해 공격적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보다 안전한 대상에 대해 공격심을 대치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적 힘이 공격심을 강화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지만, 이 이론은 공격적으

로 반응하는 경향은 인간개체 내에 형성된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2가지 방법에서 일상적인 공식화를 하는데 차이가 있다. 첫째는 Farmington(1975)에 의한 것으로 개인은 어떤 목표가 좌절되었다고 느끼는 정서반응에서 공격심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 이 이론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원천적인 충동으로서보다는 학습의 산물로서 좌절에 대한 반응으로 공격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좌절 공격 이론은 특히 가족상황에 적합하다. 가족은 보통 공격적이 되기 쉬운데, 왜냐하면 많은 좌절을 주는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실 구조와 기능의 목적에서 가족은 구성원에 대한 것부터 좌절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생애적인 좌절 중에는 그것이 부담들이 될 수 있는데 자녀 양육에 대한 불확실성과 단수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성의 제한과 헤어짐으로서 단순히 문제해결이 곤란한 것과 역할분담과 관심, 능력 보다는 다른 근거에서 온 책임감과 많은 가족 내 활동의 갈등 등이 그것이다.

좌절과 공격이론은 신뢰할 만하고 직관적으로도 타당성 있게 보이지만 이론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첫째, 어떤 좌절 상황이 공격적이 되게 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둘째, 어떤 사회에서는 좌절이 수동적이고 철회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이론은 신체적 공격심과 언어적 학대와 공격심을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3)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학습이론은 폭력행동을 학습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폭력이란 성공적인 학습상황의 산물로서 개인에게 폭력(반응)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며, 자극에 반응이 뒤따른다는 지식을 제공(폭력이 적절할 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습이론에도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 하나는 폭력에 노출을 통한 학습된 폭력으로 보고 있다. (Bandura 1961)

• 다른 하나는 폭력에 대한 노출이나 경험이 어떻게 폭력을 인정된 학습 규범으로 이끄는지에 대해 보는 것이다(Owens and Strauss 1975)

• 마지막으로 역할모형 접근으로서, 폭력은 적절한 역할모형에서 폭력을 봄으로서 학습된다는 것이다(Singer 1971)

폭력에 대한 학습이론 접근을 가족 상황에 적용시킬 때 가족은 폭력에 대한 훈련자로서 제공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가족은 역할 모형과 모방의 보기를 제공하며 후에 개인의 어린시절의 경험으로부터 적절한 부모나 부부 역할을 개발할 때 후기 생애에 채택될 수 있다.

이것은 맺가와 별로서 폭력을 격려하며 재강화하게 된다.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타살을 하는 사람에게 대한 연구를 보면 그들이 어린시절 높은 수준의 폭력을 받았음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 이론은 가족 내 폭력을 설명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3) 자아 태도 이론(Self-Attitude theory)

Kaplan(1972)의 자아태도 이론은 사회 학습 이론의 변형이다. 이것은 폭력이 개인으로 하여금 정신사회적인 경험을 평가절하함으로써 야기되는 부정적인 자아태도와 투쟁하는 노력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자존감이 결핍된 사람이 쉽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얻거나, 긍정적인 자아태도를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이탈된 행동양상을 채택하기 쉬운 것으로 보고 있다. 공격심은 이것을 성취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하위문화적 상황에서 경험이 드러난 것이든 숨겨진 것이든 공격심을 허용하며 격려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젊은 남자들은 쉽게 긍정적인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폭력의 방법을 선택하기 쉽다는 것이다. (Kaplan 1972)

자아 태도 이론은 잘 조화된 이론으로서 어떤 점에서는 다음에서 제시되는 폭력의 자원이론과 유사하다. 이들의 결점은 폭력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며 왜 가족구성원이 쉽게 자존감이 저하된 개인의 희생물이 되는지

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

4) A clockwork Orange theory

이 이론의 이름은 Burgess(1962)의 책이름인 "A Clockwork Orange"에서 따온 것이다. A Clockwork Orange는 권태와 스틸을 추구하는 충동, 지나친 호혜성에서 폭력의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폭력행동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광범위한 명칭이다. 많은 저자들, 예를 들어 Cohen(1955)의 비행에 관한 논의와 Klausner(1968)의 Stress 추구 등이 그 예이다. 어떤 폭력은 권태나 스틸을 찾는 데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지나친 호혜성은 긴장이 없어지며 그것은 좌절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가상된 최적의 Stress나 긴장 수준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 있는 개인들은 사물을 휘저으려는 시도로 폭력행위를 저지른다.

Farrington(1975)은 최적의 Stress수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족 내 폭력과 관계된 특수한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다. 그는 Stress를, 개인 가족이 직면하는 요구들 사이와 이러한 요구들을 다루는데 필요한 반응능력들 사이에 불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주장하기를 모든 개인들이나 가족단위들은 개인적이고 독특한 최적의 Stress수준을 발견하며, 그것에 가장 편안하게 기능한다. 요구와 반응능력들 사이에 불일치는 일상적인 수준에 비해 너무 지나치거나 또한 도달하지 못할 때 중요한 변화를 초래한다. 즉 가족 내 폭력의 변화가 증가한다. 비록 이 이론의 제목으로 사용된 책은 이방인에 대한 폭력을 예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족상황 내에서 눈으로 볼 수 있다. 그곳은 장갑이 너무 부드럽게 맞는 곳이며 가족 구성원이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기 원해서, 휘저으려고 시도한다.

Gelles(1974)는 어떤 여성들은 성적으로 수동적인 남편을 휘젓거나 둔한 남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힘이나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이론의 한가지 문제는 낮은 긴장이 좌절을 일으킨다는 가정이다. 만약 그렇다면

면 이 이론은 좌절과 공격이론에서 사용된 정의와는 다른 것으로 좌절을 정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낮은 긴장은 좌절을 유발한다”는 귀절 대신에 “자극의 결핍은 긴장을 증가시키며 긴장은 어떤 조건 하에서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귀절로 대치할 수 있다.

자극의 결핍은 측정할 수 있으며 이래서 좌절을 조작화하는데 직면하는 문제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Hunt 1971).

그러나 자극의 결핍을 측정하는 것은 “clockwork orange”이론을 비평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 이론은 거꾸로 과정들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나는 폭력적이다. 그래서 나는 지루해야만 한다. (Scott and Lyman 1968)

5)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Symbolic Interacton)

상징적 상호작용 접근은 폭력이론을 공식화하는데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는 이 접근의 초점을 두고 있는 사회과정들의 근본적인 성격 때문에 포함되었다. Plummer의 성에 대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견해는 생물학적 충동접근을 거부하는 대신에 사회생활의 주관적이고 상징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초점은 폭력의 의미에 관한 것이 되며, 이러한 의미들은 어떻게 형성되며, 어떻게 지속되며, 어떻게 변화되는가의 맥락 속에서 이들 의미들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폭력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행동을 구속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측면은 “폭력의 구성” 즉 상황의 역동성 : 폭력상황에서 행위자들 사이에서 만남들과 폭력사건의 생애 주기와 경력 등에 관계된 과정들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 가족과 관련시켜 적용하면 이 접근은 가족 구성원간 폭력은 공유되는 의미를 반영하며 가족 구성원 개인의 역할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했듯이 상징적 상호접근에 기대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아직 이 접근을 폭력에 초점을 두

지 않았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상징적 상호 작용이론은 공식적인 이론이기보다는 개념적 틀이다.

6) 교환이론(Exchange Theory)

교환이론 역시 개념적 틀로서 분류되고 있다. 왜냐하면 대인간 폭력을 조사하기 위한 분석적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환이론의 일반적인 견해는 가족이라는 실제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명의 가족학자들은 교환이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Edwards and Brauburger, 1973)

가족 내 폭력을 설명하는데 교환이론의 적용가능성은 Good's Burgess Award essay (1971)에 있다. 교환이론의 주요한 가정은 상호작용은 댓가의 추구하고 비용의 회피에 의해 움직여지며 댓가를 제공하는 개인은 다른 사람이 의무를 수행토록 하며 그래서 두번째 개인은 첫째 사람에게 이익을 제공해야만 한다. 만약 상호대가 교환이 일어난다면 상호작용은 계속될 것이나 만약 호혜적이지 않다면 교환이론가들은 주장하길, 상호작용은 끊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족 내 관계는 단순한 관계나 덜 영구적이며 덜 규범적이며, 덜 구조화된 집단들에게서 관계보다 더 복잡적이다. 최소한 2가지 이유에서 호혜성의 결여로 인해 자동적으로 가족관계가 끝나버리지는 않는다.

첫째는 Thibaut와 Kelley의 비교수준에 관한 업적으로서, 관계에 있어 불만족-만족은 개인에게 유용한 대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댓가를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상호 작용한다. 왜냐하면 댓가를 얻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Homnas의 개념으로 “distributive Justice(분배의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 용과 댓가의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상호작용이 계속된다. Homans에 의하면 개인은 절대적으로 댓가를 극대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것은 아니며 결과에 있어 분배가 공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사회적인 비교과정이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에 대해 개인이 댓가를 받는다는 것을 자각할 때 일어난다. 노력이나 기술, 지위 등을 많이 투자한 사람은 많이 받으며 적게 투자한 사람은 적게 받는다는 것이라면 공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도 투자한 것에 따라 행위자들이 받는 댓가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평의 원칙이 깨어졌을 때 즉, 개인의 활동이 그가 개대한 댓가를 받지 못하거나 그가 기대하지 못한 벌을 받을 때 화가 나게 될 것이고 화가 난 상태에서의 공격적인 행동의 결과가 그 댓가이다(Homans 1967)

호혜성, 대안, 분배의 공평성과 같은 견해는 아동학대에서 볼 수 있다. 어떤 아동은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상황으로 자신들의 부모에게 지나친 요구를 한다.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호혜성이 결여된 부모는 이러한 댓가를 받지 못했을 때 자녀가 지는 비용은 댓가보다 더 크다. 더우기 부모에게 유용한 대안은 적다 (부모와 자녀간 역할관계를 죽음 이외에는 거의 깨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래서 대안이 거의 없거나 작으면서 관계에 대한 불만족은 높을 때 부모는 폭력에 호소한다. 그러나 몇몇 다른 어른들의 경우처럼 폭력반응을 채택하는 이유는 교환이론에서는 설명되고 있지 않다. 대안의 결여와 분배의 공평성 원리는 부부폭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 폭력적인 배우자가 되는 지는 왜 배우자가 폭력을 채택하는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환이론에서 볼 수 있는 부부폭력의 또다른 측면은 한쪽 배우자가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교환이론가들(Homans 1967)은 상처를 준 어떤 사람에게 비용을 줌으로써 댓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인들은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으로 자신의 남편에 의해 맞거나 구타당하는데 대한 반응으로써 왜

고소한 복수를 사용하는지 이유를 아는데 도움이 되며, 또 남편은 잔소리를 하는 부인에게 왜 침묵의 폭력을 호소하는지의 이유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교환이론은 호혜성의 결여와 불공평을 교정하기 위해 왜 폭력이 선택되는지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이론들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3. 사회 문화적 이론

폭력의 사회문화적 이론은 개인폭력을 설명하는데 규범, 가치, 제도적 기구나 체계운영 등과 같은 사회적 구조나 질서를 다루고 있다. 사회구조, 기능, 하위문화, 사회 체제 등과 같은 거시적 변인들에 초점을 두지만 반드시 개인내 사회심리적 수준에서 존재하는 개념이나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

1) 폭력의 기능론적 이론(Functional Theory)

폭력은 상해나 사망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떤 사회적 기능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다. Coser(1967)는 폭력이 3가지 기본적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즉, 폭력은 개인에게는 성취 영역으로서, 지역사회에서는 위협신호로서 그리고 비참여자들이나 관찰자들에게는 행동의 촉매로서 기능을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가족폭력에 대한 사회적 기능을 적용할 때는 우리는 폭력이란 가족이라는 소체제 내에서 크게는 직업적 부적절한 댓가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Latin America 가족에서의 공격적인 남성에 대한 생각과 도시민민가에서 폭력은 성취의 다른 통로가 차단되었을 때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보여진다(Brown 1965, Toby 1966)

가족 내 폭력의 기능론적 이론의 다른 형태는 Baken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아동에 대한 폭력의 광범위한 사용은 filicide(유아살해)를 통해 인구조절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중 정도의 폭력은 간헐 공격심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는 정상적인 공격심의 해소가 심한 폭력의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

폭력에 대한 기능이론의 중심개념을 가족폭력에 적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

2) 폭력의 문화이론(Cultural Theory)

이 이론은 폭력이란 사회구조 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Durkheim, 1951)

사회의 낮은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높은 폭력의 비율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이 이론은 폭력의 분포의 차이는 폭력과 관계된 다른 문화적 규범과 가치의 기능임을 제시하고 있다. (Woffgang and Ferracenti, 1967) 폭력에 의한 문화이론은 학습된 반응이다. 그 학습은 문화적, 하위문화 집단 내에서 구성원의 결과로서 발생하며, 폭력의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하위문화로부터 참여와 학습의 결과이다.

3) 일반 체제 이론(General System Theory)

인간관계는 feed back process이다.

실질 사람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안할 때 자신의 불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또 먹게 되고 체중은 더 증가한다. 이러한 형태의 연결고리는 극히 중요하다. 이러한 고리에 대한 분석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체제이론의 심장인 cybernetic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다(Backley 1967) cybernetic한 의미에서 회한 고리는 체제의 목표, 목적과 관계된 정보과정이나 monitoring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cybernetic feed back process는 체제의 상태에 대한 수집, 해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목표나 상태의 기준과 비교하여 정확한 행동을 취한다. cybernetic model은 체제가 비교적 일정한 주요 변수들을 유지하는 시도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을 하기 위하여 변화를 주는 다른 변수들은 무엇인가? 이 모형에 따르면 stress의 정의는 가족 구성원간 폭력을 설명하는데

가족을 목적지향적인 적응체계로 본다.

폭력이란 개인 병리의 산물이 아닌 체제의 산물이며 output이며, 어떤 부정적인 회환과정은 현재 수준의 폭력을 유지시키도록 한다. Strauss(1974)는 일차적으로 cybernetic하고, 형태 발생적 과정을 확인하여 그것이 가족 폭력의 주어진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케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3) 폭력의 구조적 이론(Structural Theory)

폭력의 구조적 접근에 대한 가정은

- 이탈은 사회구조 내에서 골고루 분포하지 않는다(Durkheim 1951) 즉 폭력은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더 흔하다는 것이다.
- 둘째, 어떤 구조적 위치에 있는 사람(예를 들어 낮은 사회 경제 계층)은 더 큰 좌절을 경험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 좌절이나 박탈에 대한 빈번한 반응은 폭력으로 나타난다.
- 이러한 반응은 다른 사회화를 통해 제도화된다.

사회화란 Stress나 좌절을 다루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다른 사회 영역에서 양육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폭력의 구조적 이론은 폭력의 주원인은 분포차이 결과로서 나타나며 다른 학습경험 즉 폭력의 사용을 합법화하는 가치, 규범, 모형을 제공하는 학습경험의 결과로서 설명하고 있다. 폭력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가족에게 적용한 것은 Gelles(1974)으로서, 5가지 명제를 사용해서 가족 내 폭력 설명하고 있다. 이들 명제들은 탐색적 연구를 통해 귀납적으로 얻은 것들이다. 구조적 접근의 잇점은 대인간 폭력에 대한 현재의 생각들을 이미 통합한 것이다. 그것은 좌절, 학습이론과 Stress에 대한 현재의 생각들을 이미 통합한 것이다. 그것은 좌절, 학습이론과 Stress에 적용하는 하위 문화방식 등이다. 이 이론은 우리가 갖고 있는 폭력이론들을 쉽게 통합이 가

능하다. 그러나 단점은 가족 내 폭력에 대한 설명이나 예측을 정교화할 수 있는 가족이나 가족관계와 같은 주요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5) 갈등이론(Conflict Theory)

갈등이론은 기능적 이론의 특수한 경우이거나 완전히 분리된 이론으로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후자선택이 적합하다. 왜냐하면 쏫점의 폭력의 긍정적, 부정적 결과에 있지 않고 갈등이란 모든 인간관계에서 불가피한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갈등이론은 개인 집단 조직의 합의와 평행보다는 갈등 관리에 쏫점을 두고 있다.

Darhendorf(1968)는 갈등 모형의 3가지 기본단계를 기술하고 있는데 갈등, 대결, 변화이다. 폭력은 갈등을 수행하는 한 양식으로서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을 추구하는 양식이 대응관계에서 잘못된 갈등 관리로 인해 파괴되었을 때 쉽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Sprey(1969)는 가족의 갈등 유형을 전통적인 합의와 평형접근을 하고 있다. 가족은 대응 이익갈등 전투장이다. 가족 내 폭력은 갈등의 결과로 쉽게 발생한다. 왜냐하면 갈등은 다른 양식이 실패했을 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개발된 강력한 양식이기 때문이다.(어떤 가족에서는 최초의 선택수단이기도 하지만)

6) 가족 내 자원이론(Resource Theory)

Goode(1971)에 의해 시작된 이 이론의 기존 가정은 모든 사회 체제는 일정 수준의 힘이나 협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폭력이나 폭력에 대한 협박은 사회 체제 조직에 있어 근본적이다. 이것이 가족에서도 발견된다. Goode는 주장하기를 개인이 명령할 수 있는 자원이 크면 클수록 그가 모을 수 있는 힘이 크다고 한다. 그러나 명령할 수 있는 자원이 크면 클수록 실제로 드러난 방식으로 힘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폭력은 다른 자원들이 불충하거나 결핍되었을 때 자원으로서 사용된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우세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낮은 교육과 낮은 수입과 특권

이 낮은 직업과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남편은 우세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에 호소한다. 예를 들어 연구에서 보면 남편이 성취한 지위가 부인보다 낮은 가족에서는 남편이 높은 특권을 가진 직업인 자원을 갖고 있을 때보다 가족 구성원에 폭력이나 힘을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했다(O'Brien, 1971)

G. 가족폭력의 결과 및 영향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족폭력은 가족 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여성 또는 배우자

- 1) 타인으로부터 고립
- 2) 낮은 자존심
- 3) 우울
- 4) 알콜중독이나 약물중독의 증가
- 5) 정서적 문제나 질환이 증가
- 6) 영구적인 신체적 증상
- 7)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2. 아동

- 1) 정서적 문제와 질환이 증가한다.
- 2) 공포와 분노감이 증가한다.
- 3) 학대와 상해의 위험이 증가한다.
- 4) 사망의 위험
- 5) 학대 행동의 반복

3. 남성

- 1) 폭력에 의해서만 힘과 지배력을 얻는다는 신념이 증가
- 2) 폭력적인 행동이 증가
- 3) 법에 저촉되는 기회가 증가한다.
- 4) 정서적인 문제가 증가한다.
- 5) 자존감이 저하

4. 사회

- 1) 범죄가 증가
- 2) 법적, 정책적, 의학적 상담 및 비용의 증가
- 3) 폭력 주기의 만성화 및 영구화
- 4)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신화의 영구화
- 5) 질적인 삶의 저하
- 6) 법원, 형무소, 죄수들의 증가로 이해 비용

이 증가된다.

H. 가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

가족폭력 문제에 대한 중재는 외부인들이 중재하기에는 다소 프라이버시와 꺼리낌이 있는 주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가족 폭력에 대한 대부분의 문헌들은 아래에 거론된 3가지 형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아동학대

1) case를 확인하는 것

이런 경우를 제도적 장치로서 의무적으로 보고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학대아동을 발견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차적 책임이다.

2) 보호적인 격리수용

특히 아동의 생명, 건강에 대한 임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아동은 가정에서 나와 안전한 보호상태에 있어야 한다.

예) foster home, group home 등

3) 피해자인 아동자신도 주요하지만 폭력적인 가족 구성원과 아동의 형제들을 보호하고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Multidisciplinary approach가 필요하다.

병원, 지역사회, 특수기관에서 희생자나 그들가족과 함께 일한 팀 전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교육적 준비와 훈련도 필요하다.

5) 교육의 필요성

• 부모교육—학대아동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self-helping group인 parents anonymous에서도 부모 교육이 효과적임을 증명하고 있다.

• 일반인 교육—학교교사들을 중심으로 사례발견을 위한 목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6) 가족적인 차원—가족 내 병리적인 문제가 존재할 때 그 문제를 개선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구성원 중에서 정신병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신치료가 필요하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아동 학대 가족들이 복합적인 문제와 역기능적인 가족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중재 프로그램 역시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7) 아동 학대의 원인에 대한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전망이 밝아질 수 있다.

2. 배우자의 학대

희생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보다 중재 방안이 비교적 많이 있다. 여기서도 먼저는 case를 확인하는 것이다.

1) 피신처(Shelter)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구타를 당한 여성과 그 자녀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피신처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이다.

• 그곳에서는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며 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어비스와 접촉이 용이하다.

• 직접적인 대결은 폭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구타를 당한 여성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 결정할 동안 안전을 필요로 한다.

• 보호적인 측면 외에도 피신처에 있을 동안 자신의 권리주장, 부모훈련, 취업준비, 심리적 법적 상담, 주거 결정과 필요한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구타당한 여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3) 가해자인 구타자에 대한 접근

자신을 주장하는 훈련이나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방법, 의사소통을 증진하는 방법 등을 제공한다.

4) 재결합—전문가들이 가능한 선택들을 소개한 후, 피해자 자신들이 선택하도록 한다.

5) 그외에도 법적 방침이나 보호책을 마련하거나,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정신요법을 권장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사례에 대한 법적 보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3. 아동 성 폭행

아동 성 폭행의 경우 중재 기술은 보통 피해자, 가해자, 전가족을 위한 상담, 정신요법, 기타 프로그램 등이 있다.

1) California, Sanhose에 있는 CSATP Model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그에 준하고 있다. 이곳의 내면적 목표는 가족의 재결합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parents anoymous, alcoholics anonymous와 유사한 parents uniteded, doughters uniteded와 같은 self-helping group을 발전시켰다.

2) 또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Harborview의료원의 SAC와 같은 것으로 목표는 피해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Ⅲ.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폭력은 숨겨진 범죄, 안방 범죄로서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나 가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중재가 곤란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 난무하고 있는 폭력현상들이 가족 내 현상으로부터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가족폭력의 많은 가해자들이 폭력적인 가족 내에서 성장해오면서 폭력 행위를 습득해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사회 폭력의 근절이라는 차원에서도 가족폭력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시급하리라 본다.

이에 저자는 앞으로 가족폭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단계로서 먼저 가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기존 문헌들을 중심으로 가족폭력의 개념 및 정의, 유형, 가족폭력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들, 결과, 더 나아가서는 가족폭력의 대책에 관한 것을 문헌 고찰 형식으로 대략 살펴보았다.

REFERENCES

1. 가족간호의 이론과 조명, 취약가족세미나, 연세대학교 간호학연구소, 1990.
2. 송영선 외 : 정신간호학 서울, 수문사, 1985.
3. 이영숙 : 부부갈등과 아동학대, 군산대학 논문집 7 : 551, 1984.
4. 이영숙 : 부부간의 폭력과 그 영향, 군산대학 논문집 9 : 389, 1986.
5. Allen CM, Straus MA : Resources, Power, and husband-wife violence. 1975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1975.
6. Bandura A : Aggression ;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1973.
7. Bandura A, Ross D, Ross SA : Tmamis-sion of aggression through imitation of aggressive model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3 : 575, 1961.
8. Bandura A, Watters RH : Social Learning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Holt, Rinehart and Vinston, 1963.
9. Brown C : Manchild in the promised Land.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65, pp.263-271.
10. Burgess A : A Clockwork Orange. New York. Ballantime Books, 1962.
11. Coser LA :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New York, Free Press, 1956.
12. Coser LA : Violence and the Social Structure. Science and Psychoanalysis 6 : 30, 1963
13. Coser LA : Continuties in the Study of Social Conflict. New York, Free Pres, 1967.
14. Dahrendorf R : Class and Class Conflict

- in Industrial Society. London, Routledge Kegan Paul, 1959.
15. Dahrendorf R : Essays in the Theory of Society. Clali.,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8.
16. Dollard J, Doob LW, Miller NE, Mowrer OH, Sears RR :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39.
17. Durkheim E : Suicide ; A Study in Sociology. Translated by Spaulding JA and Simpson G, New York, Free Press, 1951.
18. Farrington K : A general stress theory of intrafamily violence. 1975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1975.
19. Gelles RJ, Stress MA : Family experience and public support of the death penal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4 : 596, 1975.
20. Gil DG : Violence against children :- Physical child Abuse in the United States. Cambrided, Mass., Havard University Press. 1970.
21. Gil DG : Violence agains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 637, 1971.
22. Goode WJ : Force and violence in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 624, 1971.
23. Homans GC : Social Behavior :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Har, Brace, World, 1961.
24. Homans GC : Fundamentalsal social processes. In N. Smelser(Ed.), Sociology. New York, Wiley, 1960.
25. Kaplan HB : Toward a general theory of Psychosocial deviance : The case of aggressive behavior.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 : 593, 1972.
26. Kempe CH et al : The battered child syndrome. Journal of he American Association 181 : 17, 1962.
27. Lee A H : People in Crisis : Understanding and Helping. Cali.,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78.
28. Levinger G : Sources of marital dissatisfaction among applicants for divor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36 : 803, 1974.
29. MacAndrew C, Edgerton RB : Drunken Comportment : A Social Explanation. Chicago. Aldine, 1969.
30. Mildred DP : Family Violenc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4.
31. Miller NE : The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Psychological Review 48 : 377. Reprinted in Berkowitz(ed.) L. Roots of Agreesion. New York, Atherton, 1969.
32. O'Brien JE : Violence in divorce prone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 692, 1971.
33. Ownes DM, Strauss MA : The social structure of violence in childhood and approval of violence as an adult. Aggressive Behavior 1 : 193, 1975.
34. Plummer K : Some relevant directions for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sex ; An interactionist approach, Annual Meetings of the 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 1974.
35. Singer JL : The control of Aggression and Violence. New York, Academic Press, 1971.
36. Snell JE : Rosenwald RJ ; Robey A : The wife beater's wife ; A study a family interaction. Archives of General Pysychiatry 11 : 107, 1964.

37. Sprey J : The Family as a system in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 : 699, 1969.
 38. Sprey J : On the management of conflict i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 722, 1971.
 39. Thibaut JW, Kelley HH :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Wiley, 1959.
 40. Toby J : Violence and the masculine ideal ; Some qualitative data. In Wolfgang ME(ed.) : Patterns of violence. The Annu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364, 1966..
 41. Wesly RB, Reuben H, Nye FI, Reiss IL : Contemporary T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Free Press, 1979.
 42. Wolfgang M, Ferracuti F : The Subculture of Violence. New York. Barnes Noble, 1967.
-